

일 주 문



봉은사 2011 대학입시 특강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8월 4일 봉은사 법당에서 이석록 메가스터디 평가연구소장 초청 2011 대학입시특강을 개최한다. (02)511-6070



조계사수능 111일 화엄신중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7월 30일~11월 17일 2011학년도 대입수능을 맞아 111일 화엄신중기도를 봉행한다. (02)732-2183



파주 보광사 부모은중경 여행
파주 보광사 주지 초격 스님은 7월 23~25일 경내 설법전에서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31)948-7700



경주 기림사 불교사화인아구대회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은 7월 24~25일 경주생활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제1회 불교사화인 아구대회를 개최한다. (054)744-2292



서울노인영화제 영상공모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은 7월 19~30일 '제3회 서울노인영화제 영상공모전' 작품을 모집한다. (02)739-9501



제40회 충남사진대전 대상
아산 해원사 주지 성호 스님은 6월 27일 현안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제40회 충남사진대전'에서 작품 '독경삼매'로 대상을 수상했다



(사)대한불교원용종 총무원장 추대
(사)대한불교원용종은 제8대 총무원장에 체의 스님을 추대했다. 스님의 취임 법회는 28일 흥본산인 구로동 원용사에서 봉행된다. (02)853-0531



공무원불자연합, 중국 성지순례
하북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7월 25일~8월 1일 중국 광저우성과 쓰촨성 일대에서 제9차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한다.

東大, 미래기반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 25억 원 수주



김동익 동국대 의학과 교수는 '맞춤형 급성뇌경색 치료를 위한 뇌신경혈관계 분자표적기반 나노분자영상 기술개발'로 교과부로부터 5년 간 총 25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 과제인 맞춤형 혈전용해 치료기술은 한국 단일질환 사망률 및 장애 유발률 1위 질환인 뇌졸중 질병 중 급성 뇌경색의 치료에 쓰인다.

■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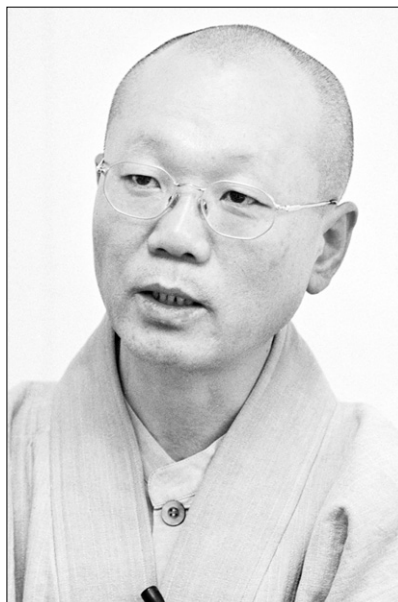
“광덕 스님의 사상과 전법행 계승”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행모델을 개척해 도심포교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한 광덕 스님(1927~1999)의 사상과 전법행을 계승하는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사진)이 7월 10일 개원했다.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은사이신 광덕 스님은 살아계실 때 불교사회과학 연구소를 설립해 불교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스님의 유지를 이어 불광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근대화·서구화의 격랑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새의 두 날개처럼 한국불교를 받쳐준 선지식들이 있어 가능했다. 수행과 정법을 위해 신명을 바친 선승들과 교화와 전법을 위해 헌신한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며 “부처님 법대로!를 기치로 봉안사 결사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이 수행기풍 진작과 조계 종지를 드높인 선지식이라면 불광법회를 창립하고 잠실법에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 스님은 전법 교화로 불교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선지식이었다”고 평가했다.

광덕 스님은 1982년 불광사를 창건한 이후 한문으로 된 의례를 한글화하고,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행모델을 개척함으로써 도심포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로 대표되는 법 중심의 신행체계를 확립해 기복불교의 한계를 넘어



한국불교가 지향해야할 현대적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홍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덕 스님의 사상과 공적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객관적 평가가 뒤따르지 못했다. 이는 수행과 사상을 담당해 온 선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조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며 아쉬워 했다. 이런 아쉬움이 불광연구원 개원의 밑거름이 됐다. 지홍 스님은 광덕 스님의 뜻에 따라 한국불교가 직면한 제반문제에 대해 폭

넓게 연구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연구원은 선지식들의 전법행을 잇고 한국불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자 스님 사상·사건·사건·사건의 연구법주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년에 5차례에 걸쳐 10개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제출된 원고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광덕 스님과 관련한 학술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지홍 스님은 “불교는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개항을 맞이했다. 외세와 서구종교의 유입과 함께 밀려온 서구문물과 사조는 불교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낡은 과거의 유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지난 100년간 한국불교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4대문 안으로 승려들의 출입조차 금지됐던 상황에서 다시 한국의 대표적 종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불교의 환경적 조건은 좋아졌으나 소프트웨어(신행, 포교, 수행 등)의 프로그램은 실제에 맞게 준비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홍 스님은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뜻을 계승해 무명을 밝히는 사바의 빛이 되기를 서원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서원했다.

이나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국제선센터 선원장 효담 스님 임명

원통 스님, 외국인승려로는 첫 소임자

개원을 앞둔 국제선센터의 소임자가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7일자로 국제선센터 선원장에 효담 스님, 총무국장장에 법원 스님, 국제국장장에 원통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임명장 전달 후 “주지 현조 스님을 중심으로 국제선센터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이르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국장 원통 스님은 폴란드 출신으로 외국인 스님으로서 처음 중앙총무기관 및 유관기관 소임자에 임명됐다.

자승 스님은 원통 스님에게 “국제선센터에 적합한 외국인 스님을 찾기 위해 5



효담 스님



법원 스님



원통 스님

개월 여를 검토했다. 원통 스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선원장 효담 스님은 1986년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지산 스님. 각하사 태백선원, 실상사 백장선원, 범어

사 금어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영축총림선원, 해인총림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총무국장 법원 스님은 1996년 직지사서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은사는 보광 스님이다.

국제국장 원통 스님은 1996년 직지사서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6년 10월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폴란드 출신으로 은사는 행원 스님이다. 기본선원과 조계총림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조동섭 기자

“이후 활동 더 기대한다”

김종욱 교수·보각 스님 불이상 수상



제25회 불이상 시상식 뒤 수상자·심사위원들과 불이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왼쪽부터) 김성철 교수, 최병현 명예교수, 불이회 이명희 부회장, 윤용수 명예회장, 홍리희 회장, 보각 스님, 김종욱 교수, 심산 스님.

불이회(不二會·회장 홍리희)가 제정된 제25회 불이상 시상식이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제25회 불이상 수상자는 연구분야에 김종욱(동국대 불교대학) 교수가, 실천분야에 보각 스님(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이, 사회봉사분야에 김성철(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학예분야에 최병현(명예교수)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씩이 전달됐다.

심사위원장 최병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심사보고를 통해 “김종욱 교수는 불교학의 영역을 넓히고, 방송 강의 등으로 불교의 대중화에도 기여했다. 보각 스님은 사회복지기관 설립 및 운영으로 불교 복지사업의 사회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김종욱 교수와 보각 스님은 그동안의 성과도 훌륭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종욱 교수는 불교학과 철학, 심리학, 생태학 등의 관계를 연구하며 불교사상을 체계화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보각 스님은 1994년부터 삼전종합사회복지관, 1995년 원주 소재 마을 등을 위탁 운영 하며 불교계의 대표적 장애인 시설로 성장시켰다. 2004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를 설립해 연로한 스님들과 소외 노인 계층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 스님은 2010년 들어서 비구니 노스

님들만을 위한 노후생활공간인 ‘심우당’을 경기도 화성에 건립 중이며, 27년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김종욱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불교는 철학·과학과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종교”라며 “이 상을 받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부처님 사상을 펼치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각 스님은 “부처님 자비는 말이나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씨를 잘못 쓰는 건 신적재 장애보다 훨씬 더 큰 장애”라며 “불교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좀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25회 불이상 심사는 최병현,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김성철 동국대 불교대학 부교수, 불이회 심사단이 맡았다.

1985년 제정된 불이상은 재가여성불자 모임인 불이회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단체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편 불이회는 한국 불교계의 활성화와 새로운 재가 불교, 여성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1974년에 설립됐다.

박선주 기자

나눔은 기쁨, 함께하는 세상

고운사 여름수련회

Table with columns: 시작, 종료, 기간, 프로그램명, 주요프로그램, 참가비, 인원, 비고. Rows include dates from 7/24 to 8/6 and details for children's, middle school, and general s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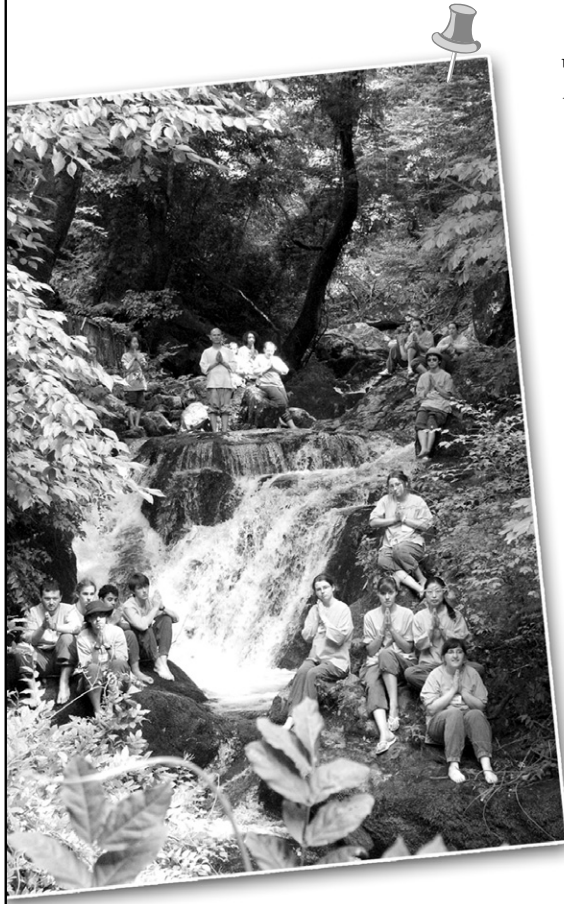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gounsa44@hanmail.net) ☎ 054)833-6933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감사

공주 문화유적관람과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



2010년 대전, 충청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주시 후원으로 감사의 템플스테이와 공주 문화 유적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2박3일 여름 수련회 일정 중에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주 국립박물관,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중인 석장리박물관을 관람하는 일정입니다.

일 정

1차 : 7월 23일 ~ 7월 25일(금-일, 2박3일) 40명(초등 4~6학년, 중학생) \*1차일정에는 도예체험이 있습니다.

2차 : 7월 30일 ~ 8월 1일(금-일, 2박3일) 40명(가족과 함께)

3차 : 8월 6일 ~ 8월 8일(금-일, 2박3일) 40명(일반)

참가비 : 어린이 50,000원 / 중·고등학생 60,000원 / 일반 80,000원

참가방법

1) 신청 - 감사 홈페이지(계룡산감사:www.gapsa.org)에서 접수 - 신청순 접수마감(운영자량이 없으므로 개별 도착)

2) 입금 - 농협 457017-51-056540 (예금주: 감사)

3) 도착시간 - 오후 2시 30분

준비물

1)차투, 수건, 운동화, 모자 2)초등, 중학생은 수련복 없이 상의(면티)만 지급되므로 여벌옷준비

1박 2일 템플스테이

·수행형 템플스테이 - 매일 둘레 넷째 주말(토,일)

- 단체일 경우 프로그램, 일정(주중) 조절가능

·휴식형 템플스테이 - 주중가능(누구나) 전화접수

·동참금 : 어린이 2만원, 청소년 3만원, 일반 4만원

\* 문의사항 - 감사 중무소(041)857-8981~2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감사